



나무도 목 말라요 전국적으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전 광주 북구 효죽어린이공원에서 북구청 공원녹지팀 직원들이 공원 내 녹지에 물을 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더위쉼터’ 늘리다보니 지원금 줄었다

광주시 지난해 736곳서 올 1072곳으로 46% 추가 지정 냉방비는 20% 줄여 6~9월 8만원...“에어컨 엄두 못내”

폭염이 빨라지고 여름이 길어지는데도 광주시가 무더위쉼터에 대한 지원금을 20% 줄이면서 폭염 대책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해보다 무더위쉼터를 330여개를 늘려 ‘생색내기용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시 따르면 광주지역 무더위쉼터는 동구 96곳, 서구 231곳, 남구 124곳, 북구 347곳, 광산구 274곳 등 총 1072개소가 지정됐다. 이 중 98%인 1052곳이 경로당으로, 이용자는 노인들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736곳이던 무더위쉼터를 올해 336곳을 새로 지정, 1072곳(46%)으로 늘렸다.

시는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복지회관·마을회관 등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쉼터로 지정되면 냉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무더위쉼터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금을 쉼터당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20% 줄였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무더위쉼터 지원 예산으로 6620만원을 편성해 민간시설 쉼터 663곳에 쉼터당 냉방비 10만원씩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 100곳 가량 추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 쉼터 지원예산을 844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시의 예산과 달리 경로

당 등 민간시설 336곳에서 무더위쉼터 운영 신청을 했다. 결국 시는 예산 편성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3일 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20%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9일 지원금을 5개 구청에 내려보냈고, 구청은 이번 주 내에 무더위쉼터에 냉방비 8만원씩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무더위쉼터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4개월간 운영되는데 매달 8만원씩이 아닌 4개월동안 8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폭염이 빨라지고 여름철이 길어지면서 4개월간 냉방비 8만원 지원은 ‘생색내기’라는 것이다. 실제 올들어 전국 처음으로 광주에 폭염경보가 발효돼 4일째 이어지고 있다. 30도가 웃도는 무더위는 7월 초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름 지원” 탓에 무더위쉼터에서는 에어컨을 놔두고 선풍기로 더위를 쫓고 있다.

양2동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오순옥(여·81)씨는 “덥지만 에어컨을 켜면 한여름 무더위에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면적·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쉼터에 일괄적으로 8만원씩 지원되는 탓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더위쉼터는 이용자들의 편의에 따라 냉방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쉼터마다 제각각”이라며 “지원금이 축소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규제 하나하나... 넘쳐나는 선행학습 광고

‘학벌없는사회’ 광주 학원 64곳 실태 조사...2년새 두배 늘어

“허술한 법 개정·단속 늘려야”

‘예비 중1, 예비 고1 수시모집중--내신·심화·선행’, ‘초 5, 초 6 중등 과학개념 12개일 완성’

광주 첨단지구를 비롯, 봉선동·장동 일대 학원가에 나붙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문구들이다. 이른바 ‘선행교육 규제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교습

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원가에선 선행교육이 성행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올 상반기에 광주지역 학원 밀집 지역인 봉선동·장동, 첨단·신창지구 일대 학원들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광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64개 학원의 선행학습 조장·홍보 광고 실태를 파악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상반기, 같은 기간 적발한 건수(26건)에 견줘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로, 허술한 법규정과 교육 당국의 소극적 행태도 한몫을 했다는 게 학벌없는사회 주장이다.

대부분의 학원들은 ‘중학교 입학 전 중1과정 2회 끝내기’는 문구 등을 내걸고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A 학원에서는 중 1이 중 3 과정까지 끝냈다”거나 “B 학원에는 중학교 1학년에게 고교 과정까지 가르쳐 준다”는 학원별 선행학습 수준이 공공연

하게 나돌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 시행된 이른바 ‘선행교육 규제법’은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제재 방안이나 실질적인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선전·홍보 행위만 규제할 뿐 학교와 달리, 학원의 선행학습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여기에 교육청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행정 지도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학벌없는사회 주장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이같은 점을 들어 “학원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학원 운영 조례 등을 개정해 학원의 선행학습 홍보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해질 02:10
해짐 19:50 달짐 15:19

폭염주의보 해제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은 뒤 흐림	20/29	보성	맑은 뒤 흐림	17/25
목포	맑은 뒤 흐림	20/27	순천	맑은 뒤 흐림	19/27
여수	맑은 뒤 흐림	20/26	영광	맑은 뒤 흐림	17/29
나주	맑은 뒤 흐림	17/29	진도	맑은 뒤 흐림	18/26
완도	맑은 뒤 흐림	20/25	진주	맑은 뒤 흐림	19/33
구례	맑은 뒤 흐림	16/28	군산	맑은 뒤 흐림	18/30
강진	맑은 뒤 흐림	19/26	남원	맑은 뒤 흐림	17/33
해남	맑은 뒤 흐림	19/26	홍산도	맑은 뒤 흐림	18/24
장성	맑은 뒤 흐림	17/2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방향	파고(m)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남동 0.5	북~북동 0.5~1.0
남부 앞바다	남~남동 0.5~1.5	북~북동 0.5~2.0
남해 앞바다	남~남동 0.5~1.0	북~북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남동 0.5~2.0	북~북동 1.5~3.0
남해 서부 앞바다(사)	남~남동 1.0~2.5	북~북동 1.5~3.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3:29	10:12
	16:01	23:06
여수	11:40	05:25
	--:--	18:11

주간 날씨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18/29	19/34	21/31	20/31	20/29	20/29	20/29

생활지수

	주의
	식중독
	매우높음
	자외선
	미세먼지
	보통

‘임을 위한 행진곡’ 소설로 본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이원화 작가 집필

5월 광주의 노래이자 ‘국민의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전남을 넘어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이루어 낸 모든 사람들의 노래다.

오는 10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감독 박기복)이 최근 소설 ‘임을 위한 행진곡’(조인출출산간)으로 발간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작품집 출간은 영화의 재편을 확대하고 문학으로 광주 정신을 잇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특히 광주일보 신춘문에(2006년) 출신이자 광일문학상(2011년) 수상자인 이원화<사진> 작가가 집필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이 작가는 “작년에 화순 출신 박기복 영화 감독으로부터 원작 시나리오의 소설화 요청을 받았다”며 “지난 3월은 원주 ‘토지 문화관’에서, 4월은 담양 ‘글을 낚는 집’에서 집거하며 소설을 썼다”고 밝혔다.

소설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시대

적 배경과 탄압 등 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밝힌다.

이 작가는 “5·18에 대한 문학적인 측면과 젊은이들의 순수한 사랑에 초점을 맞췄다”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5월의 이야기, 나아가 사회적 편견에 맞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서사는 당시 24세였던 철수의 의문사와 22세 명희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37년이 지난 2017년 현재를 그리고 있다.

이 작가는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 창작하는데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평범하지만 의로운 이들이 만들어냈던 광주 대중세상, 생명 공동체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상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천시장
2~5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영
6 743㎡ | 전문병원원외 및 폐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영

친철상당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Hanwha Q CELLS 한화큐셀

시중가 600~650만원 월 4만 7천원부터

농업 업무제휴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스olar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하세요!

경시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해가온빌딩 1층)